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0년 10월 14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종우, 차장 권효성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졌으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다소 둔화되었다.

세계경제지표

		19.4/4	20.1/4	2/4	3/4	20.6월	7월	8월	9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연율, %) ¹⁾	2.4	-5.0	-31.4	..	-	-	-	-
	소매 판매(전기비, %) ¹⁾	0.5	-2.2	-7.1	..	8.6	0.9	0.6	..
	산업생산(전기비, %) ¹⁾	0.1	-1.7	-13.2	..	6.1	3.5	0.4	..
	수출(전기비, %) ¹⁾	0.2	-1.9	-28.2	..	14.4	12.1	3.0	..
	ISM제조업(기준=50) ²⁾	48.1	50.0	45.7	55.2	52.6	54.2	56.0	55.4
	실업률(%) ¹⁾²⁾	3.5	3.8	13.0	8.8	11.1	10.2	8.4	7.9
	비농가취업자수증가(만명) ¹⁾	62.8	13.3	-1,820.8	707.0	478.1	176.1	148.9	66.1
유로	GDP성장률(전기비, %) ¹⁾	0.1	-3.7	-11.8	..	-	-	-	-
	소매 판매(전기비, %) ¹⁾	0.4	-2.7	-5.0	..	5.5	-1.8	4.4	..
	산업생산(전기비, %) ¹⁾	-1.0	-3.4	-15.8	..	9.5	4.1
	수출(전기비, %) ¹⁾	1.2	-2.5	-22.7	..	10.9	6.5
	제조업PMI(기준=50) ²⁾	46.4	47.2	40.1	52.4	47.4	51.8	51.7	53.7
	경기체감지수(기준=100) ²⁾	100.6	100.0	69.4	87.0	75.8	82.4	87.5	91.1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6.0	-6.8	3.2	..	-	-	-	-
	수출(전년동기비, %)	2.0	-13.3	0.1	8.8	0.5	7.2	9.5	9.9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7.7	-19.0	-4.0	..	-1.8	-1.1	0.5	..
	고정투자(전년동기비, %) ³⁾	5.4	-16.1	-3.1	..	-3.1	-1.6	-0.3	..
	제조업PMI(기준=50) ²⁾	49.9	45.9	50.8	51.2	50.9	51.1	51.0	51.5
브라질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0.5	-1.7	-19.4	..	-8.8	-2.8	-2.7	..
러시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1.8	1.6	-8.5	..	-9.4	-8.0	-7.2	..
글로벌	교역량증가율(전년동기비, %) ⁴⁾	-1.1	-3.4	-13.7	..	-9.0	-7.4

주: 1) 계절조정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누계 기준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가, 금리 등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다.

국제금융지표¹⁾

		20.5월	6월	7월	8월	9월	10.13일
전세계 MSCI		509.5	524.9	551.9	584.9	565.2	588.9
- 선진국		2,147.9	2,201.8	2,305.0	2,455.5	2,367.3	2,464.2
- 신흥시장국		930.4	995.1	1,078.9	1,101.5	1,082.0	1,136.4
(중국 ²⁾)		2,852.4	2,984.7	3,310.0	3,395.7	3,218.1	3,359.8
VIX		27.5	30.4	24.5	26.4	26.4	26.1
환율	달러인덱스	98.3	97.4	93.3	92.1	93.9	93.5
	신흥시장국 ³⁾	54.8	54.3	55.6	55.4	54.5	54.7
	중국 ⁴⁾	7.14	7.07	6.97	6.85	6.81	6.74
국채금리 ⁵⁾ (%)	미국	0.65	0.66	0.53	0.70	0.68	0.73
	독일	-0.45	-0.45	-0.52	-0.40	-0.52	-0.56
CDS프리미엄(bp)	브라질	286.2	252.0	217.6	215.2	247.8	219.6
	인도네시아	165.9	131.4	116.0	93.6	114.8	93.1
	한국	28.0	27.3	23.6	22.5	26.3	24.1

주: 1) 기말 기준

4) 미 달러화 대비

2)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5) 10년물 기준

3)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 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더딘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다. 수출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는 조정을 지속하였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1.3%)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16	2017	2018	2019	194/4	201/4	2/4	3/4	206월	7월	8월	9월
GDP 성장률 ¹⁾	2.9	3.2	2.9	2.0	1.3	-1.3	-3.2	..	-	-	-	-
(민간소비)	2.6	2.8	3.2	1.7	0.7	-6.5	1.5	..	-	-	-	-
(설비투자)	2.6	16.5	-2.3	-7.5	2.6	0.2	-0.5	..	-	-	-	-
(건설투자)	10.0	7.3	-4.6	-2.5	8.0	0.5	-1.5	..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3.9	1.9	4.3	2.4	1.9	-6.4	6.5	..	2.3	-6.0	3.0	..
설비투자지수 ²⁾	1.8	14.4	-3.6	-6.2	4.3	-3.0	5.6	..	5.0	-0.8	-4.4	..
건설기성액 ²⁾	15.8	11.4	-4.2	-6.9	1.0	4.1	-4.6	..	-0.5	0.9	-7.1	..
수출(통관) ³⁾	-5.9	15.8	5.4	-10.4	-11.8	-1.8	-20.3	-3.2	-10.9	-7.1	-10.1	7.7
- 일평균 ³⁾	-5.9	17.3	5.2	-11.2	-11.8	-5.4	-18.5	-4.6	-18.5	-7.1	-4.0	-4.0
제조업생산지수 ²⁾	2.3	2.3	1.3	0.1	1.3	0.1	-7.5	..	7.2	2.3	-1.0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2.6	1.9	2.3	1.4	0.7	-3.0	-1.5	..	2.2	0.3	-1.0	..
소비자심리지수 ⁴⁾	98.9	105.3	103.3	98.3	100.0	93.2	76.7	83.9	81.8	84.2	88.2	79.4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70	80	75	72	73	66	51	64	51	59	66	68
취업자수 증감 ⁶⁾	23.1	31.6	9.7	30.1	42.2	28.8	-40.7	..	-35.2	-27.7	-27.4	..
(제조업)	-2.1	-1.8	-5.6	-8.1	-4.1	0.6	-5.5	..	-6.5	-5.3	-5.0	..
고용률(원계열)	60.6	60.8	60.7	60.9	61.4	59.9	60.0	..	60.4	60.5	60.4	..
실업률(원계열)	3.7	3.7	3.8	3.8	3.1	4.2	4.4	..	4.3	4.0	3.1	..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6)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전년동기비

[물 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1% 수준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낮아져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19.4/4	20.1/4	2/4	3/4	20.6월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¹⁾	0.3 (0.3)	1.2 (0.5)	-0.1 (-0.8)	0.6 (0.6)	0.0 (0.2)	0.3 (0.0)	0.7 (0.6)	1.0 (0.7)
▪ 농축수산물 (농산물)	-2.5 -5.8	2.0 -0.5	3.2 -0.3	10.3 12.3	4.6 0.5	6.4 4.9	10.6 12.1	13.5 19.0
▪ 공업제품 (석유류)	0.2 -3.1	2.0 10.5	-1.4 -13.7	-0.5 -10.7	-1.4 -15.4	-0.4 -10.2	-0.4 -10.0	-0.7 -12.0
(석유류 제외)	0.7	0.8	0.5	1.0	0.7	1.0	1.0	1.0
▪ 전기·수도·가스	1.5	1.5	1.3	-4.3	1.3	-4.5	-4.4	-4.1
▪ 서비스	0.7	0.6	0.1	0.3	0.1	0.2	0.3	0.5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0.6	0.6	0.1	0.4	0.2	0.4	0.4	0.6
▪ 농산물·석유류 제외	0.7	0.8	0.5	0.8	0.6	0.7	0.8	0.9
기대인플레이션율 ²⁾	1.7	1.7	1.6	1.8	1.6	1.7	1.8	1.9

주: 1) ()내는 전기비

2)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상당폭 등락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큰 폭 하락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0.5월	6월	7월	8월	9월	10.13일
통안증권금리(91일물, %) ¹⁾²⁾	0.60	0.62	0.57	0.64	0.61	0.63
국고채금리(3년물, %) ¹⁾²⁾	0.83	0.84	0.80	0.94	0.85	0.92
국고채금리(10년물, %) ¹⁾²⁾	1.37	1.37	1.30	1.52	1.43	1.53
KOSPI ¹⁾	2,030	2,108	2,249	2,326	2,328	2,403
원/달러 환율 ¹⁾	1,239	1,203	1,191	1,188	1,170	1,147
(전월말대비 변동률, %)	1.67	-2.87	-0.97	-0.29	-1.54	-1.92

주: 1) 기말 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19.4/4	20.1/4	2/4	3/4	20.6월	7월	8월	9월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¹⁾	21.3	22.6	18.0	29.0	8.2	7.6	11.7	9.6
▪ 주택담보대출 ²⁾³⁾	15.1	18.4	13.9	16.7	5.1	4.0	6.1	6.7
▪ 기타대출 ⁴⁾	6.2	4.2	4.2	12.4	3.1	3.7	5.7	3.0
주택 매매가격(%) ⁵⁾	0.7	1.2	0.8	1.5	0.4	0.6	0.5	0.4
▪ 수도권 ⁶⁾	1.3	1.8	1.3	1.8	0.5	0.8	0.5	0.4
(서울)	1.8	0.6	0.0	1.4	0.1	0.7	0.4	0.3
▪ 광역시 ⁷⁾	0.9	1.0	0.6	1.5	0.4	0.4	0.4	0.6
▪ 지방 ⁸⁾	0.2	0.5	0.4	1.3	0.3	0.4	0.4	0.4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중별대출은 신탁 제외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3) 주택관련대출 포함

4)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5)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

6) 서울, 인천, 경기

7)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